

무주군 반딧불이 관리 '허점'

먹이 다슬기 방사 부서·채취어업 허가 부서 공존

무주군이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를 방사하는 부서와 패류 채취어업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반딧불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타당성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주군은 2002년 1월 천연기념물 제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습지관리는 물론 반딧불이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013년 50kg, 2014년 60kg, 2015년 60kg 등 총 170kg의 다슬기를 방사했다.

그러나 허가를 내줄 당시 같은 부서에서 다른 담당은 채취어업허가를 내

줘 다슬기를 그물로 잡아 씨를 말릴 정도의 이종적인 타당성으로 말미암아 실효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먹이원인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반딧불이 서식에 위해 한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패류채취어업의 허가 조건으로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포획금지채종 준수하고, 어란 채취 및 치어 포획금지, 보호어종 및 천연기

념물 포획금지 등으로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무주지역 어업 종사자들은 그물을 이용해 다슬기를 잡고 있어 씨가 마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모(무주읍 45)씨는 "반딧불이 서식지역에 다슬기가 많아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그물로 다슬기를 잡아 씨를 말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반딧불이 서식지역에 다슬기를 방류하고 패류 채취어업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물로 잡는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문화의 집, 국가 공모사업 14개 선정

3억원 지원받아

완주문화의 집이 2016년 국가 공모사업에 14개가 선정 되어 3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군은 평소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도전을 독려하는 바, 완주문화의 집은 이에 힘입어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많은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한국문화

원연합회 주관인 '어르신 문화일자리, 어르신 문화콘텐츠, 어르신 문화동아리' 지원사업과 농어촌희망재단의 '우리동네 멋쟁이 생활공예가', 전북 문화관광재단의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한국문화의집협회의 '찾아기는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회관연합회의 '국창 권삼득' 기획공연 지원사업,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지역민 향토유지컬반 양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이다.

완주문화의집의 공모사업으로 혜택

을 받은 대상은 지역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여 문화예술 향유 계층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상리면, 이서면, 동상면, 소양면 등의 지역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지역민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특히 소양면 일일마을 최복순 어르신은 경로당이 들쭉들쭉 재미있어졌다고 기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재정 확충 힘 모아

국회서 성명서 발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69개 지자체 / 이하 군수협)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한상기 회장(태안군수)과 황정수 감사(무주군수)를 비롯 군수협 회장단은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일 국회 정문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훈은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어촌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군수협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

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에도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조정교부금제도 가 본래 취지대로 가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美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협약

진안홍삼 우수성 홍보

제7회 어바인 한인문화축제의 2년 연속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항로 진안군수와 이항기 진안군의회 의장, 배성기 군의원 등을 대표로 한 진안군 일행은 지난 13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미주 지역에 알리고 현지시장 확보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한인상공회의소 셰리 린(Sherry Lin) 회장은 LA에 대형마트 6개소를 운영 중인 한남체인 등을 연계하여 진안홍삼제품 수출을 위한 협력과 다민족이 참여하는 행사에 진안군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상생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6 청정무주 과학문화축제에서 황정수 군수가 설명을 듣고 있다.

"창의력 맘껏 발산하길"

무주 과학문화축제 성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2016 청정무주 과학문화축제가 지난 14일 무주중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과학과 문화, 놀이의 융합형 체험으로 자연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북교육청이 주최, 무주산골스텝 연구회가 주관하고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 무주중앙초등학교와 무주119안전센터가 후원했다.

이날 개최된 개막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교육지원청 손주

현 장학사를 비롯한 1천 여 명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해 흥황을 이뤘다.

황 군수는 "공모를 통해 소중한 기회를 발굴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과학과 기술, 공학, 예술과 수학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시간을 통해 숨어있던 끼가 발산을 하고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창의력이 발휘돼 미래 꿈으로 향하는 자신감 또한 넘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산불 기계화진화대 지상진화대회 도내 1위

장수군이 산불 기계화진화대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가 주관으로 지난 11일 실시한 2016년 산불 기계화진화대 지상진화 경연대회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최우수상에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목적으로 산불진화 기계화시

스템 장비 및 인력운영체계의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산불진화 기계화 장비 설치와 산불발생시 급수 진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장수군은 불철 산불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전문 기계화진화대원을 배치하고 산불기계화 진화 장비와 진화인력을 운영해 신속한 초기진화 역량을 배양해오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특별블리스

진안군 읍·면 이장단

주요사업장 현장견학 호응

진안군은 군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11개 읍·면 이장단의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견학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첫 날 정천면 이장단 14명을 시작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진안읍 불곡리)미야산 관광단지, 로컬푸드 판매장을 비롯하여 읍면에서 희망한 인삼 무인방제시설과 작은목욕탕(안천)을 방문하였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이장들은 마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둘러보면서 분리수거 생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신기술을 접목한 소득 사업장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군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군과 일선 이장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공감 속에서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지진발생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3일 오후 장수 한누리전당에 지진발생 건물 붕괴 및 화재 발생시 재난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2016년 불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장수 한누리전당에 지진발생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한누리전당 직원 등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재난대비 불시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은 무진장소방서와 장수군청, 군부대, 경찰기관, 병원 등 14개 기관·단체에서 317여명의 인원과 33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지진발생으로 건물붕괴와 대형화재 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고 각 유관기관별 수습·복구 등 일사 분란한 대응활동을 펼쳐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조용주 서장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대응능력을 숙달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장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업과
063-430-2951



장수농협, 과일숙기 일손돕기 봉사

지난 13일, 장수농협은 김용준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 15명과 NH농협 장수군 지부(지부장 이승진) 직원 4명 등 총 19명이 일손을 구하지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3,000여평 규모의 과수농가(장수군 정수읍 수분리 송곡리)를 대상으로 적과작업(과일숙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농작업을 할 인력 부족으로 중요한 농작업 일정한 적과(과일숙기)를 놓칠 수 밖에 없었던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농협직원이 자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농가에게 단비와 같은 도움을 준 봉사활동이었다.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은 "최근 사과 재배면적의 확대와 고령화로 농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은 물론, 농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촌인력 수급방안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